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NIGHTBOOKS

가제 : 나이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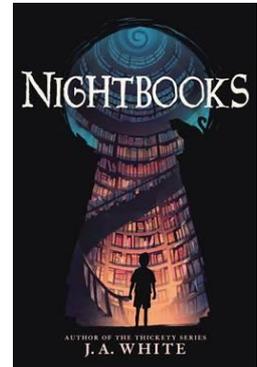
저자 : J.A. White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HarperCollins

발행일: 2018년 7월 2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판타지 4부작 『The Thickety』의 작가의 신작

★ 『헨젤과 그레텔』,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소가 가미된 스릴 넘치는 판타지 소설

좀비, 마녀, 유령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오싹한 이야기에 푹 빠진 소년 알렉스가 어느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에 아파트 지하실로 향하다 엉뚱한 집 문 앞에 다다른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분명 대사와 음악까지 다 외울 정도로 알렉스가 좋아하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분명했다. 부모님 몰래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으면 하려던 일부터 끝내고 나중에 얼마든지 그 영화를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알렉스의 초록빛 눈동자가 희한한 빛을 띠기 시작하고, 결국 새벽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집 대문을 똑똑 두드리고 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대문이 활짝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머리카락에 새카만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등장한다. 그때만 해도, 알렉스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자진해서 발을 들이게 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알렉스의 난데없는 등장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영화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다는 설명에 무슨 영화냐고 되물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알렉스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을 틀어놓지 않았냐고,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들을 분명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4년 전, 공포와 으스스한 존재들의 세계로 알렉스를 처음 끌고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영화였기에 잘못 들었을 리가 없었다. 일찍 잠자리에 든 알렉스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잠이 깨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는데, 팝콘 상자를 안고 꼭 붙어 앉은 엄마 아빠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 화면은 어린 알렉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태어나 그렇게 무섭고 오싹한 장면은 처음이었는데, 겁이 나는데도 자꾸 호기심이 솟아났다. 그 날 이후, 소방차나 기차 같은 걸 만들던 레고 블럭은 전부 귀신 나오는 대저택을 짓는 데 사용되고, 귀여운 봉제인형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먼지만 쌓여가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기괴한 형상

을 한 괴물 장난감과 도서관에서 빌려온 귀신, 유령, 마녀 이야기였다.

처음 본 여자가 대문을 연 순간 알렉스의 정신을 흥미하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가장 좋아하는 호박파이 냄새였다. 오븐에서 갓 꺼낸 듯 향긋한 시나몬 향이 가득해서 분명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당장 하나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님나타를까, 문간에 선 여자의 등 뒤로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이 나오고 있는 대형 텔레비전과 커피 테이블에 가득 쌓인 호박파이가 눈에 들어왔다. 멍하니 그쪽을 보고 서 있는 알렉스에게 여자는 얼른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그리하여 그 대문 안으로 알렉스가 들어선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여자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잡았다.”

몇 초 전까지 눈 앞에 있던 텔레비전, 테이블, 소파, 쿠키, 호박파이는 모두 사라졌다. 뒤돌아보니 심지어 문까지 없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알렉스에게, 여자는 깔깔 웃어대며 ‘영화라니 참 희한하구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원래 아이들은 음식에 잘 넘어오게 마련인데.’라는 말도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마법에 걸린 아파트에 살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유인해서 잡아들이는 진짜 마녀였다.

정신을 잃은 알렉스는 모든 것이 악몽이지만 바랐지만,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비명을 질러대는 알렉스를 찾아온 나타샤는 집에 보내달라는 애원에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만 할 뿐, 여기서 뭘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녀가 홀연히 사라지자 방문도 다 사라지고 2층 침대와 옷장 정도만 갖추어진 작은 방에 알렉스는 그대로 갇혀버렸다. 여긴 대체 어디일까? 나타샤라는 마녀는 아이들을 여러 명 잡아들이는 것이 분명한데, 뭘 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있던 쪽에서 여자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 왔다. “그 여자는 이야기를 좋아해.” 그 말이 전부였다.

으스스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일까, 알렉스는 밤마다 머릿속을 가득 메운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를 펼쳐 떠오른 이야기를 글로 써야만 지쳐서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부모님 몰래 새벽에 집을 나섰던 그 날은, 그렇게 모은 이야기 노트를 아파트 지하실로 가져가서 태워버리려고 작정을 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마녀의 집에 제 발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알렉스는 누군지 모를 소녀의 조언대로 나타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태우려고 했던 알렉스의 이야기 책, 일명 ‘나이트 북’을 펼치자 나타샤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고, 알렉스는 어쩌면 이야기가 이상한 집과 마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마녀의 집에 갇힌 또 다른 아이, 야스민은 이미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말리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야기는 점점 바닥이 나고, 마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문 없는 공간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다 그 이야기 속에 갇혀버린 소녀의 특별한 모험이 펼쳐지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J. A. 화이트(J. A. White)는 뉴저지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4년부터 총 4권으로 구성된 판타지 시리즈 『The Thickety』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목 : JANE DOE AND THE CRADLE OF ALL WORLDS

가제 : 제인 아무개와 세상의 요람

저자 : Jeremy Lachlan

출판사: Hardie Grant Egmont

발행일: 2018년 8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브라질 판권 계약 체결된 4부작 시리즈**

*** 호주에서 체결된 최초 출판 계약은 치열한 경매 끝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체결**

그냥 길을 걸어가지만 해도 낮게 웅얼거리는 욕설과 구원해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열네 살 소녀 제인 ‘아무개’는 학교는 물론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건물과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쥐가 들끓는 더러운 지하실에서 병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존 아무개’와 함께 살면서 그 집의 노예처럼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이 고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언제 끝이 날까? 신비한 대저택 ‘라멘트’가 입구에 자리한 섬 블루 헤이븐, 부녀가 이 섬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시작된 이상한 사건들,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온 뒤 굳게 닫혀버린 라멘트 저택의 문, 이후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제인과 14년간 잠들어 있던 저택이 깨어나면서 시작된 방대한 모험이 네 편의 시리즈로 완성될 예정이다. 내년 8월 첫 선을 보일 1권에 이어 매년 한 권씩 공개될 블루 헤이븐의 수수께끼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또 한 편의 판타지 어드벤처 대작이 되리란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존이 요람에 담긴 제인을 데리고 블루 헤이븐을 찾아오게 된 배경과 제인이 겪은 고초들, 그리고 다시 깨어나 대대적인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저택의 변화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날씨가 안 좋거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지는 일까지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는 대상은 바로 할로우 부부가 사는 농가 지하실에 사는 제인이었다. 블루 헤이븐 섬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어느 날,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 라멘트 저택에 들어갈 때 그의 손에 들린 바구니 안에 담겨 있던 아기는 이제 어엿한 소녀로 자라, 그 집의 하녀 혹은 노예처럼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걸핏하면 욕을 듣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찬 아이가 되었다. 제인의 관심사는 도와주지 않으면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는 것,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기 전에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붙인 존, 제인이라는 이름 말고, 아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았을까? 왜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아빠의 머리카락은 노인처럼 허연 회색으로 새어버렸을까?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왜 엄마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을까? 블루 헤이븐을 벗어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라 제인

은 가끔 미쳐버릴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지저분한 지하실 한 칸에 꽂힌 사진 한 장과 그 뒤에 적힌 메모는 제인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서 오전 10시에. 답을 알고 싶다면 혼자 올 것. - 에릭 아틀라스.” 마치 답답한 제인의 속마음을 다 읽기라도 한 것만 같은 이 메모는 작성자가 에릭만 아니었어도 그냥 무작정 믿고 싶었다. 블루 헤이븐의 시장으로 새로 뽑힌 인물, 마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에릭이 집안일 때문에 매일 동 트기 전에 일어나는 제인보다 먼저 부지런히 여기까지 와서 이런 메모를 남기다니? 게다가 메모가 적힌 사진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도 너무 이상했다. 대체 이 사진은 누가, 어디에서 찍은 것일까? 제인의 유일한 친구인 할로우 부부의 외동딸, 바이올렛은 분명 누군가가 제인을 괴롭히려고 친 뒷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가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뒷이 아니라면? 그래서 정말 알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 들려준다면? 어차피 어딘가에서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뒤쫓는 사람을 따돌리는 일과 같은 생존 기술은 누구보다 뛰어난 제인은 속는 셈 치고 에릭 아틀라스의 집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문제는 그 날이 마을에서 일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벌어지는 날이고, 라멘트 저택과 마주보고 있는 광장을 지나야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인을 꼭 닮은 인형을 만들어놓고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마녀를 화형시키듯 인형을 활활 태우는 의식이 바로 그 날 예정된 행사였다. 제인과 존 아무개가 온 이후 성 전체에 저주가 내렸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인이 가져온 무서운 저주가 풀리기를, 그래서 라멘트 저택의 문이 다시 열리고 행복했던 옛 시절처럼 누구나 저택을 지나 ‘다른 세계’로 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즐거운 이야기와 신나는 모험이 가득한 ‘다른 세계’는 사람들이 ‘모든 재앙이 시작된 밤’이라 부르는 그 날 밤, 제인과 존이 성에 당도한 그날 이후 전부 사라졌다. 그리고 저택의 신성한 계단에 존과 바구니에 담긴 아기가 발을 디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애쓰던 제인은 에릭 아틀라스와 수상한 여자의 계약에 빠져 위기에 처하고, 간신히 도망 치던 과정에서 나이 든 모험가와 마주친다. 제인과 존의 진짜 과거를 아는 그와의 만남,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강력한 지진은 잠들어 있던 저택을 깨운다. 의식이 흥미한 존 아무개를 안으로 불러들인 라멘트 저택은 제인에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장 흑독한 미션을 던진다. 지금까지 제인이 겪은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나니아 연대기』와 <매드 맥스>가 결합된 듯한 숨막히는 모험, 갈라진 두 세상을 잇는 무서운 미로, 무엇도 겁내지 않는 여주인공의 활약이 기대되는 어드벤처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레미 라클란(Jeremy Lachlan)은 호주에서 태어나 ‘오스카 앤 프렌드(Oscar & Friends)’ 서점에서 파트타임 도서 판매원으로 일해 왔다. 여행과 글쓰기, 만화영화를 포함한 영화 보기를 즐기며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나니아 연대기, 주라기 공원과 같은 스케일이 큰 이야기에 푹 빠져 살았다. 위 시리즈가 데뷔작이다.